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36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21일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호남권 '외상 사망률' 높고·목포권 '임산부 사망' 많다

대한의학회지·국립중앙의료원 분석 결과 안타까운 전국 1위 '불명예'
병원 접근성 낮아 환자 관리 취약 … 필수의료 분야 열악한 현실 반영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1년 5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권의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 연구팀이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전국 권역별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 분석결과 광주·전라·제주권(21.1%)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외상사망률(13.9%)의 두배에 근접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21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929명을 대상으로한 분석결과다.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 사망자의 비율'을 뜻한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가 10.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12.4%), 부산·대구·울산·경상(13.6%), 대전·충청·강원(15.8%)에 이어 광주·전라·제주권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라·제주권은 조사 첫 해인 2015년 40.7%에서 2017년 25.9%, 2019년 17.1%로 사망률이 낮아졌으나 2021년 다시 증가했다.

지역 의료관계자들은 고령인구 증가와 지리적 한계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경원 센터장은 "세계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빠른 시간 내 외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받으면서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면서 "국내의 평균 사망률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평가 결과는 지역 외상센터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보다 의료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전문의는 "2021년 당시 코로나 판데믹이 포함된 통계인 만큼 이 지역이 재난 상황에 취약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권역외상센터로의 이송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권의 경우 산부인과 의료 붕괴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발표한 '모자의료센터 접근성과 모자보건의 지표와의 연관성' 논문에 따르면 목포권은 임산부 사망률이 34.08명으로 전국 평균(10.33명)의 3배 이상이었으며, 출생 전후기 사망률(1.45명)도 3.58명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국을 31개 진료권으로 나눠 권역별 임산부와 신생아의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임산부 사망률'은 출생아 10만명 당 임산부 사망자 수를, '출생전후기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28주 이상 태아~생후 7일 미만 신생아 사망자를 의미한다. 의료관계자들은 목포권의 분석 결과에 대해 분만 병원 부족과 모자의료기관과의 이동거리가 먼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목포권의 모자의료기관까지 이동거리는 67.46km로 전국 평균(10.41km)의 6배 이상으로, 전국에서 포항권(69.96km)에 이어 두번째로 멀었다.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김윤하 교수는 "신안군이나 목포지역의 임산부와 출생전후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병원 접근성이 멀어 고위험 임신부·태아 관리가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분만병원이 없는 분만취약지역이라면 우선 보건소에서 임신부 등록 및 1차 관리가 이뤄지고, 가장 인접 분만병원에 산전 진찰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해야한다" 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건강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외 의료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수술 50여 건 무더기 보류

수술실 정상화 2일 이상 소요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환자들의 수술이 무더기 보류됐다. 〈관련기사 6면〉

14일 광주동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신관 3층 7번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에 있던 간호사가 소화기로 화재를 자체 진압하면서 불은 10여분 만인 오전 8시 20분께 꺼졌다. 이 불로 3층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 등 40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36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수술실에서는 수술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측은 수술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후속 안전 점검을 위해 수술실 15개 전체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15개 수술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술 27건과 15일 예정된 20여건 수술이 모두 보류됐다. 이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던 환자 중 1명이 타 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병원 측에 요청했다.

일반 외래나 진료는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병원 측은 소방당국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전기시설 점검 등을 거쳐 수술 재개일을 정할 방침이다. 수술실 정상화에는 최소 2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병원 측은 보고 있다.

병원측은 당장 긴급을 요하는 단순 외과적 치료의 경우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수술실을 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14일 오전 조선대학교병원 5층 수술실에서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병원 관계자가 화재 발생 현장을 폐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조회수 3000만 돌파

호남 신문사 최초 기록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정치·사회·문화·인물
다양한 목소리 전달
尹 탄핵집회·대선 과정
생생한 영상 보도

KIA 타이거즈와
광주FC 선수들
인터뷰·훈련 현장 등
비하인드 스토리 인기
영상 PD직 신설
콘텐츠 전문화 '박차'

광주일보 유튜브 QR 코드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이 호남 지역 신문사 최초로 누적 조회수 3000만 회를 돌파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바라는 독자들에게 지역 언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2017년 1월 1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광주일보는 지난 8일 3000만 누적 조회수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14일 2000만 누적 조회수를 기록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은 광주·전남권 이슈를 다룬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바탕으로 스포츠,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해왔다.

특히 KIA 타이거즈와 광주FC를 다룬 콘텐츠는 홈구장 중심의 현장 취재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선수 심리, 팀 분위기 등 경기 이면의 정보까지 전달해 스포츠 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 전후 생생한 분위기와 놓치기 쉬운 디테일까지 담아내며 지역 스포츠 콘텐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의 활동 무대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매년 KIA 타이거즈와 광주FC의 해외 전지훈련을 영상으로 소개해온 광주일보는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전 현장을 직접 취재해, 광주FC의 아시아 무대 도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사회·정치 분야에서도 광주일보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광주일보는 금남로와 서울 여의도,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순간 헌법재판소와 5·18 민주광장의 상황 등을 신속하게 영상으로 담아내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치인 인터뷰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등을 조명한 선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민의 정치 참여를 이끌기도 했다.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은 소외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 치매 환자와 보호자, 돌봄 노동자의 이야기를 콘텐츠에 녹여내 관련 정책 개선 및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영상 PD직을 신설하고 공개 채용에 나서는 등 영상 콘텐츠 전문화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뉴미디어 매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광주일보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사회의 생생한 이야기는 물론 전국적·글로벌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면서 뉴미디어 시대의 지역 언론 모델로 도약할 계획이다.

/설혜경 기자 sir@kwangju.co.kr

화재의 뇌관 멀티탭 ▶6면
치매가 스며든다 - 치매 안심마을 조성 ▶18면
KIA 이범호 감독 "후반기 키플레이어 위즈덤"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